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18.(수) 12:00
(지 면) 2026. 11. 19.(목) 조간

외국인주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이웃으로 함께하다

- '2026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개최(11.19.)
- 사전심사를 통과한 지방정부의 8개 정책사례 발표를 거쳐 최종 심사 실시, 최우수(1건), 우수(3건), 장려(4건) 순위 결정
- 언어 소통부터 의료·돌봄·정주 지원까지 지역 여건 반영한 현장 중심 우수 정책 총출동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 외국인 유학생 A 씨는 식당 방문 시 메뉴 주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방정부에서 보급한 다국어 번역 플랫폼을 통해 QR스캔으로 모국어로 된 음식 정보를 확인하고 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외식의 불편함을 덜 수 있었다.

○ 이주배경 청소년 B 학생은 부모의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미등록 상태에 놓여 진로 탐색에 제약이 있었으나, 지방정부의 맞춤형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체류 상담을 받고 합법적 체류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진로 지원을 받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9일(목)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6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연다.

>> 경진대회는 1차, 2차 심사를 거친 8건을 현장에서 발표 후 최종 시상

우리나라 총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외국인주민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노동력 부족 속에서 지역사회를 함께 이끌어 가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돕는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2025. 11. 1. 기준, 외국인주민 266만 2,967명(총인구 5,181만 7,499명 대비 5.1%),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6. 10. 28.)

특히 언어·의료·교육·돌봄·취업 등 생활 전반에서 외국인주민이 겪는 어려움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지방정부의 우수한 지원 경험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본선에 진출한 사례는 외국인주민의 실제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통합을 이끌어낸 현장 중심의 정책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다!” 전남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콜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말은 달라도 주문은 쉽게! 외국인주민의 외식 불편을 바꾼 「부산올랭」(부산광역시), ▲외국인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외국인 감염병 예방 통합 검진 사업(부산광역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프로젝트 ‘날개’(경기도 남양주시), ▲춘천형 외국인 유학생 전주기 ‘LINK’ 모델 구축(강원도 춘천시), ▲“배움으로 잇는 내일”, 이음지도사 맞춤형 통합케어(충청북도 청주시), ▲한글학당에서 시작된 전북살이, 국적취득 앱으로 정주까지(전북특별자치도), ▲일하러 온 외국인, 거창에서는 주민입니다(경상남도 거창군) 등 8건이다.

이들 사례는 외국인주민의 언어장벽 해소, 의료 접근성 개선, 교육과 진로 지원,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등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선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4건 등 총 8건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 지방정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장헌범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지방정부의 우수한 정책 경험과 현장의 지혜를 서로 나누고 확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대준	(044-205-3251)
		담당자	주무관	남성진	(044-205-325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경진대회 발표사례(8건)

※ 연번은 행정구역 순

순번	구 분	사례 제목 및 주요내용
1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다!" 전남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활밀착형 상담 - '통번역 서포터즈', 맞춤형 동행 및 산업재해 예방 통역 서비스 - 기관 연계, 심화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상담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2	부산광역시	**말은 달라도 주문은 쉽게! 외국인주민의 외식불편을 바꾼「부산올랭」** - 앱 설치 없이 QR 스캔만으로 7개 언어로 음식 정보를 즉시 확인 - 메뉴·가격 변경 때마다 다시 제작하지 않고 영업주가 직접 수정·반영 가능 - 언어장벽 없는 외식환경을 부산에서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
3	부산광역시	**외국인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외국인 감염병 예방 통합 검진 사업** - '외국인 감염병 통합 방역 체계' 정립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적극적인 유소견자 발견 및 치료 연계로 지역사회 집단 감염 차단 - 다국어 감염병 예방 교육 및 감염병 대응 물품 배부로 복지 체감도 제고
4	경기도 남양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프로젝트 '날개'** - 체류상담과 지원을 통한 미등록 이주배경 청소년의 합법적인 체류 전환 - 특화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한 진로 구체화와 자존감 제고 - 지역사회 기반 돌봄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5	강원도 춘천시	**춘천형 외국인 유학생 전주기 'LINK' 모델 구축** - 기존 유휴 숙박시설에서 유학생 기숙사로 전환 - 전통시장·지역축제를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으로 확대 - 대학·공공기관·민간과 분야별 협력을 전제로 한 정주기반 강화 협약 추진 - 외국인 유학생을 춘천의 미래 지역인재로 기업-유학생 매칭
6	충청북도 청주시	**"배움으로 잇는 내일" 이음지도사 맞춤형 통합케어** - 결혼이주여성 전문 인력 양성 확대 - 아동 수준에 맞는 맞춤형 밀착 지도 - 통합 케어(아동+부모) 학습, 정서·학교생활 코칭, 학부모 대상 교육·생활 정보 연계 - '다문화 특화' 거점형 지원 확장 모델로 통합체계 구축
7	전북특별자치도	**한글학당에서 시작된 전북살이, 국적취득앱으로 정주까지** - 전북 소개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지역 인지도, 친밀도를 제고 - 온·오프라인 한국어 교육 전북도 문화·역사 체험, 실무형 기술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 제공 - 공공기관·중소기업 연계 유학생 인턴사업 및 선배 외국인 '지역기반 비자 이끄미단' 운영을 통한 수요 맞춤형 취업 지원
8	경상남도 거창군	**일하러 온 외국인, 거창에서는 주민입니다.** - 현지 공무원·통역사 파견 배치 및 누리소통망(SNS) 전용 소통창구로 상시 고충 해결 - 항공권 선지원, 공항 단체 인솔, 기숙사 내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 운영 - 적십자병원 무료 파상풍 접종, 농협 전용 통장 개설 등 - 생활용품 지원, 계절근로자 웰컴 팸투어 및 열린음악회 개최